



광양시 철도관광 상품 '5S-Train' 인기 짱

9천여 명 이용...이달 1천2백여 명 방문 예정



광양시가 지난해 9월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철도관광 상품인 '5S-Train'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본격적인 철도관광 상품 운영에 앞서 국내 대형 여행사와 여행관련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캠퍼를 3차례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5회 2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남

도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 봄꽃인 매화개화기인 3월에는 47회 7천여 명이 철도를 이용해 광양을 찾아왔다.

특히, 철도 이용객들이 순천에서 다시 갈아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중인 서울~순천, 부산~순천을 오가는 열차 이외에도 광양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임시 열차가 운영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봄꽃 축제로 알려진 다압면 매화마을을 방문하고, 정병옥 가옥이 있는 진월면 망덕포구,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명소인 광양을 와인풍물, 천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옥룡면 옥룡사지 등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다.

또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광양숯불구이를 맛보는 등 광양민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했다.

시는 4월에도 6회 1천 2백 명의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해 광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여행객들은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지고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져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 있는 먹거리를 맛 볼 예정이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이번 철도관광 상품이 수도권에서도 당일 여행이 가능해져 수도권 관광객에게 인기뿐만 아니라 여행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확충되면, 단순히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닌 먹고 즐기며 힐링하고 쉬어갈 수 있는 숙박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광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대학로 활성화로 '젊은 순천' 견인한다

대학로, 별별공간·고고장·페스티벌 추진으로 활력 넘쳐



순천시가 지난 2016년 행사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로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아 대학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된 '별별공간'은 버스킹 및 이벤트를 위한 '별랑 잔치소'를 비롯한 8개 공간(인포메이션, 마켓 실험실, 모두의 작업장, 낭만 영화관, 뽕골뽕골 놀이터, 쉬엄쉬엄 휴게소, 액션스테이션)으로 주민과 대학생들의 새로운 공유공간으로 뜨고 있다.

특히, 통통 뛰어올라 스트레스를 푸는 트램폴린이 마련된 '뽕골뽕골 놀이터'는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더불어 대학로 랜드마크로 떠오를 '액션스테이션'은 대학로에 분산된 '별별공간'의 주 거점 공간인 총괄 사무소로 쓰일 예정이며, 오는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주민과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기획·추진하는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육성 결과' 2018년 대학로 활성화 프로그램은 '삼산풍류단'과 '청춘오지라퍼'가 직접 진행한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매월 추진하기 시작한 '만나고 즐기고 또 보자' 이란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고장'은 '삼산풍류단'에서 추진한다. 양지형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삼산풍류단'은 삼가번영회 및 청년활동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운영한 '3월 고고장'을 성공리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4월 '고고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도한 '대학로 페스티벌'은 청년활동가와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청춘 오지라퍼'에서 운영한다. 허남석 대표를 비롯한 최병광 순천대 동아리 협회장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청춘 오지라퍼'는 1차로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학로 페스티벌'을 성황리 개최했다.

시는 대학로 거주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손으로 워크숍'과 12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별별공간'인 '모두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내손으로 워크숍'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컬트'와 '목공'을 추진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컬트'는 오는 4월부터 총14회에 걸쳐 파우치와 손가방 만들기 등 도전하며 소액의 유료체험비로 운영한다.

'별별공간'인 '별랑 잔치소' 주변에서 운영될 '목공'은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3회 4, 5, 6월 고고장 운영 시 진행되며 빵도마, 찻상 만들기 등 도전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될 '문화프로그램'은 공모로 선정된 12개 단체가 참여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대학로 인문학 버스킹, 입체낭독극, 보드게임체험, 퓨전 재즈 청년유랑단 거리 켈러리 등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되는 '청춘 오지라퍼'는 1차로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학로 페스티벌'을 성황리 개최했다.

시는 대학로 거주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손으로 워크숍'과 12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별별공간'인 '모두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내손으로 워크숍'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컬트'와 '목공'을 추진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컬트'는 오는 4월부터 총14회에 걸쳐 파우치와 손가방 만들기 등 도전하며 소액의 유료체험비로 운영한다.

'별별공간'인 '별랑 잔치소' 주변에서 운영될 '목공'은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3회 4, 5, 6월 고고장 운영 시 진행되며 빵도마, 찻상 만들기 등 도전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될 '문화프로그램'은 공모로 선정된 12개 단체가 참여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대학로 인문학 버스킹, 입체낭독극, 보드게임체험, 퓨전 재즈 청년유랑단 거리 켈러리 등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반려식물 상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농가 공모

오는 11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인공토양을 활용한 순천시 반려식물 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키우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인공토양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순천시 반려식물 상품 개발로 반려산업 육성 및 지역 화폐 농

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인공토양은 흙탕물과 벌레가 생기기 않으며, 택배 배송 시 쏟아질 염려가 없고 가법다는 장점이 있어, 식물을 쉽게 키우고 관리하기 위한 소비자 욕구와 배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자의 애로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순

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15개 농가를 모집, 한 농가당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농업인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공모일 3년 전부터 순천시에 실거주하는 화훼 농가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전남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광양시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귀촌 유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재경광주전남향우회와 전남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 정도(定道) 천년(千年)을 맞아 수도권 도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라도의 맛과 멋, 자연이 숨쉬는 전라도를 알리는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된

다.

시는 박람회 기간 귀농·귀촌 정책과 귀농성공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1대 1의 맞춤형 상담을 통한 현실적인 귀농관련 정보 제공한다. 특히, 풍부한 일조량과 백운산 등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거리가 10~20분 이내에 인접해 교육·의료·쇼핑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도시민이 정착하기에 안

정감을 갖춘 최고의 지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이동친화도시' 등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지난해 가을 여행주간 전국 아간명소 30선에 선정된 '비밀의 숲 노랭이골 자연리조트'와 폐철도를 활용한 화려한 이색공간인 '광양와인동굴' 등 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해 도시민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마을공동급식 확대 시행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부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마을공동급식은 영농철 농촌의 일

순부족현상 극복 일환으로 여성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마을공동급식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가 높아 올해 상반기 계획했던 200개소를 초과한 213개 마을이 본 사업을 신청했으며, 시는 신청된 마을 모두를 올해 공동급식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순고인돌유적지에 선사체험장 개장

군, 55억 들여 선사시대 생활 재현...움집 25동 복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에 선사시대의 생활을 재현한 고인돌 선

사체험장이 조성됐다.

화순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지 내에 '고인돌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13일 오후 2시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고인돌 선사체험

장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55억여원을 들여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지 일원 33,799㎡ 규모의 부지에 5년 동안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선사인들이 살았던 움집 25동을 복원해 당시의 농사, 사냥, 어로 생활 등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선사체험장이 체험장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선사시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산 교육장은 물론이고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